

<自己紹介>

フリーアナウンサー／MC 桜庭有紀子 SAKURABA YUKIKO

北海道札幌でフリーアナウンサーとして活動後 2013 年 12 月に韓国に留学。

ソウルの淑明女子大学を卒業後現在は韓国学中央研究院で韓国社会学を研究しています。

留学前から K-POP アイドルのコンサートの MC・通訳や日本語指導、韓国関連のイベント MC として活動し、留學生活と平行しながら日本に韓国文化を紹介する多くのイベントに携わっています。

<日韓 MC として見た韓国社会と多文化共生のための理解>

私は 10 年近くの韓国生活の中で多くの韓国人と仕事や学びを通じて多文化交流を行ってきました。今回は学術会議ではなく日韓交流＝共同課題へ対処するためのネットワーク基盤が目的と伺っておりますので、専門的な内容とは少し趣向を変え韓国イベント MC の活動や留學生活を通して感じた韓国社会や多文化共生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日韓 MC>

MC としては韓国の歌手やアーティストの日本公演の進行、現地での通訳、そしてアーティストや俳優への日本語指導を行ってきました。韓国と日本それぞれで MC をしながらも違いを感じます。韓国では私のように MC を職業として活動している人は少なくコメディアンやタレント業と平行しながら MC 業を行う人が多いです。そのため MC という職業の役割も違いを感じます。

日本では MC はあくまで進行役であり主役となるのはその舞台に立つスターと観客の皆さんです。日本の MC は表に出てはいるものの目立たずイベントを円滑に進めるための裏方の役割が重視されます。しかし韓国の MC はまるで自分のために用意された舞台のように自身の存在感をアピールしながら進行します。日本では必要以上に MC が目立った進行をすると不満が生まれ観客の満足度が下がってしまいますが、韓国では比較的主張の強いスタイルの MC が受入れられます。

この点を見ても両国の違い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日韓イベント>

多くの韓国イベントに携わり韓国人と共に仕事をしてきてここでも日韓の違い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日本のイベントは準備期間が長く細かいところまで慎重に検討してイベント準備がされます。台本もしっかり決められリハーサルも細かく行い、事前に確認できる時間もたっぷりあります。そのため失敗が許されない雰囲気でもあります。

一方韓国のイベントはその場で決まってしまうことが多いです。観客の反応や雰囲気を見て進行が変更されることもしょっちゅうです。リハーサルは日本ほど細かく行われず打ち合わせした内容が本番で急遽変更となるのは日常茶飯事です。MC や通訳などのスタッフに求められるのはそれに対応できる瞬発力だと、韓国のイベントを担当してしみじみ思います。

その代わり失敗には比較的寛大で、いろいろハプニングがあっても笑顔で終わればそれが成功というおおらかさがあります。MC のみならず舞台に立つ俳優やアーティストもその傾向が強いです。あるミュージカルの日本人演出家が、日本と韓国で同じ舞台演出を担当した際、日本の俳優には細かい点までくまなく指導するが、韓国の俳優にはそれができないため日本の半分も指導をしない。韓国人は本人の技量で舞台を消化するので、日本と韓国では舞台の演出方法を変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言うのは有名なエピソードです。

<芸能人>

そして主役となるスターについてです。私は日本語指導も行っていますが、韓国の芸能人はデビュー前から海外で活動することを視野にいれています。

これは韓国内需市場が狭いため世界での競争力を得る必要があり、海外での活動のため過酷な準備が必要となるのが日本との違いになります。準備の一環として日本語をはじめとする他言語の学習が必要となり、所属会社を通じて外国語のレッスンが行われます。言語を学ぶことはその国の文化を学ぶことと繋がるため、多文化を受け入れるための態勢が整っているとと言えます。結果その気持ちが伝わり多くの海外ファンに愛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スケジュールに関して韓国芸能人はとてもハードで特にアイドルは仕事以外の時間でもダンスや演技や語学レッスンなどが組み込まれていて休む暇がありません。これは仕事とプライベートの時間を分けない（労働時間の区別がない）世界最長レベルと言われる労働時間大国であることも関係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日本では労働時間の確保や休憩時間が比較的守られているため、日本活動は韓国の活動に比べてスケジュールに余裕ができるからと嬉しそうに日本活動をする韓国人アーティストも多いです。

<課題／結論>

このように韓国と日本を比較した事例を元に話しましたが、これはどちらが良いとか悪い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たくてお話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違いがある中で多文化共生をどのように推進していくかについては非常に大きな課題になります。私は日本人 MC として韓国人と共に仕事をしたり日本語指導をしたりする中で、自国の常識が必ずしも通用しないという事を念頭に置き、さらに違う文化圏の国へ礼節を持つことの重要さを忘れ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私のように相手の国に住み相手国の言語で生活をしていたとしても、多文化共生の壁にぶつかることは多くあります。その都度自分と考えが違う相手に否があるのだと考えるのではなく、また自虐するわけでもなく相互理解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

私は今韓国の大学院で韓国社会学を研究していますが、どんな事象にもその背景には必ず理由がありその事象を理解するためには社会的背景や歴史までをすべて洗い出し考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ちろん人との関係の中でそこまで求める必要はありませんが、相手に関心を持ち理解しようとする気持ちが必ず必要になります、これが多文化共生の一番の近道だと考えます。

<まとめ>

私も現在韓国から奨学金などの外国人支援を受け学んでいます。外国人を受け入れ手厚く支援する事で、韓国文化が世界へと広まり最終的には自国のメリットとして反映されるため、お互いにウィンウィンの結果となっていると言えます。移民や外国人労働者が増えることで否定的な意見は多くあると思いますが、外国人を受け入れる多文化共生は最終的に自国を発展させることに繋がります。そして私同様日本でも多くの韓国人や外国人が生活しています。努力して日本で学びたい、働きたいと考える外国人に対して受入れる姿勢はできているのでしょうか？アジアの先進国として早いスタートを切った日本は、経済的にも発展していると見られてきた歴史があり多文化を“受け入れる側”であることが多かったと思います。こちらが歩み寄るより先に他国の人が私たちに歩み寄ってきてくれる、そんな状況がほとんどでした。日本を出て海外のリゾート地に行ったとしても、現地のスタッフが日本語を話してくれる、日本で働く外国人もすでに日本語はペラペラで日本文化を理解している、そのような環境に私たちは慣れ過ぎ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他国の言語や文化を理解し、自国以外で働いたり学んだりする外国人はどれだけの努力と志を持って海外に来ているのかを今一度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理解は一方的なものではなく受け入れる側も尊敬の念を持って相互理解に努めることが真の多文化共生ではないでしょうか。まずは相手に関心を持ち、相手を知ることからはじめましょう。。

<자기소개>

프리 아나운서 / MC 사쿠라바 유키코

훗카이도 삿포로에서 프리 아나운서로 활동 후 2013년 12월에 한국으로 유학.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올해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학하기전부터 K-POP 아이돌 콘서트의 MC 나 통역이나 일본어 지도, 한국 관련 이벤트 MC 로 활동하며 유학 생활과 병행하면서 일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일 MC로서 본 한국사회와 다문화 상생에 위한 이해>

저는 10년 가까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배우면서 다문화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학술회의가 아닌 한일교류=공동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목적이라고 하니 전문적인 내용과는 조금 달리 한국행사 MC의 활동과 유학생생활을 통해 느낀 한국사회와 다문화 상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일 MC>

MC로서는 한국 가수나 아티스트의 일본 공연을 진행하거나 현지 통역, 그리고 아티스트나 배우에 대한 일본어 지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각각 MC를 하면서도 차이를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저처럼 MC를 직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개그맨이나 텔런트와 병행하면서 MC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라는 직업의 역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MC는 어디까지나 진행자이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스타와 관객들입니다. 일본 MC는 겉에 서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고 이벤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이면의 역할이 중시됩니다. 하지만 한국 MC들은 마치 자신을 위한 무대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며 진행합니다. 일본에서는 MC가 필요 이상으로 두드러진 진행을 하면 불만이 생겨 관객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주장이 강한 스타일의 MC가 받아들여집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일 행사>

많은 한국 행사에 종사하며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한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행사는 준비기간이 길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벤트 준비가 됩니다. 대본도 확실히 결정할 수 있고 리허설도 세세하게 실시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 행사는 즉석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고 진행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리허설은 일본만큼 세세하게 실시되지 않고 협의한 내용이 실전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것도 자주 있습니다. MC나 통역 등 스태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라고 한국의 이벤트를 담당하며 자주 생각합니다. 그 대신

실패에는 비교적 관대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은 있어도 웃는 마무리 잘 끝나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창함이 있습니다. MC 뿐만 아니라 무대에 서는 배우나 아티스트도 그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뮤지컬의 일본인 연출가가, 일본과 한국에서 같은 무대 연출을 맡았을 때 일본 배우에게는 세세한 점까지 꼼꼼히 지도하지만 한국 배우에게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절반만쯤도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배우들은 본인의 기량으로 무대를 소화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무대 연출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연예인>

그리고 주역이 되는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어 지도도 했지만, 한국 연예인들은 데뷔 전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얻어야 하고, 해외에서의 활동을 위해 가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과의 차이입니다. 준비의 일환으로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의 학습이 필요하고, 소속사를 통해 외국어 레슨이 이루어집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전해져 많은 해외 팬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스케줄에 관해서는 한국 연예인은 매우 빡빡하고 특히 아이돌은 일 이외의 시간에도 춤이나 연기나 어학 레슨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과 사적인 시간을 나누지 않는(노동시간의 구별이 없는) 세계 최장 수준이라고 불리는 한국 노동시간 대국인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 확보나 휴식시간이 비교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일본 활동은 한국 활동에 비해 스케줄에 여유가 생긴다고 기쁜 마음으로 일본 활동을 하는 한국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과제/결론>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다문화 상생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큰 과제가 됩니다. 저는 일본인 MC로서 한국인과 함께 일하거나 일본어 지도를 할 때 자기 나라의 상식이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다른 문화권 국가에 예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처럼 상대국에 살면서 상대국 언어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다문화 상생의 벽에 부딪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 대학원에서 한국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으므로 일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인 배경이나 역사까지 모두를 다 분석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문화 상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저도 지금 한국에서 장학금 등 외국인 지원을 받아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극진히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어 그게 결국 한국 이익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의견은 많이 있겠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상생은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많은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일본에서 배우고 싶거나 일하고 싶다고 하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시아 선진국으로 빠르게 출발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여겨져 온 역사가 있어 다문화를 "수용하는 쪽"인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접근하기보다 먼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주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을 나와 해외 휴양지에 갔다고 해도 현지 직원이 일본어를 해주거나,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이미 일본어는 유창하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각오를 가지고 해외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도 존경심을 갖고 상호 이해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상생이 아닐까요? 우선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